

민주 전대 시기·방법 놓고 갈등 고조

정세균 7월 개최 검토... 비주류 반발

차기 전당대회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당초 8월 하순으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시기를 7월 중순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달 6일인 정 대표의 임기 만료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당대회를 준비하자는 비주류에 역풍을 가하는 것이어서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앞서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권과 대권 분리, 전당원 투표제, 지도체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주류의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가 임기 만료와 함께 사회하고 7월 중순 전대를 치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임을 위해 당대표 임기를 전대까지 연장하려 한다는 비주류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실무진은 이미 전당대회 장소로 내달 11일 일산의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을 잡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류 측의 조기 전당대회 개최는 비주류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중도성향 의원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장 정 대표의 연석회의 소집 소식이 알려지자 비주류 협의체인 쇄신모임은 19일 저녁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쇄신모임은 정 대표가 7월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할 경우 이

를 적극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비주류 측에서는 차기 당권주자들과의 연대 등을 통해 정세균 대표 측의 조기 전당대회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한편 전당원 투표제, 지도체제 개편, 당권과 대권 분리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측 의원은 “전당대회 대표도성향 의원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장 정 대표의 연석회의 소집 소식이 알려지자 비주류 협의체인 쇄신모임은 19일 저녁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쇄신모임은 정 대표가 7월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할 경우 이

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모처럼 민심이 민주당에 돌아왔는데 자충수를 두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린다면 주류와 비주류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주류와 비주류의 극단적 대립 등으로 민주당은 상당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주류 측이 차기 당권 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두는 측면이 강하다”며 “국민과 민심을 바라보는 보다 성숙한 당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운수역에서 7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며 시민들과 물가, 교육비 등 생활대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한 당권경쟁 본격화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대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당 간판급 인사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중립, 소장·쇄신파가 복잡한 4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교통 정리 여부가 관심사다. 또 광주·전남 출신의 첫 선출직 최고위원의 탄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대 후보군=친이 핵심 정두언 의원이 지난 15일 전대 출마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범 친이계인 4선의 홍준표 전 원내대표와 중립파인 4선의 남경필 의원이 20일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전교조 명단공개'로

유명한 조전혁 의원이 17일 출마를 선언했다. 4선의 친이계 안상수 전 원내대표는 21일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며 화합형 인사인 김형오 전 국회 의장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친박에서는 3선의 서병수 의원이 결심을 굳힌 가운데 유정복·이성현·이해춘·한선교 의원 등 재선 4인방 가운데 한 명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중도파에선 남경필 의원에 이어 3선의 권영세 의원과 재선의 나경원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 당 밖에서는 김태호 경남지사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호남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나오나=6·2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 시·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두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 3인방' 가운데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정몽화 전 청와대 비서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중 한 명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 세 명의 행보가 이번 주 가닥이 잡혀나갈 것이 한나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비록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정두언 의원이 광주 출신으로, 대표나 선출직 최고위원이 될 경우 한나라당 내 호남 인사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교체론 주목=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정몽준 전 대표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일단 '박대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과연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초반 구도라면 보면 중립인 안상수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다소 앞서가는 가운데 세대교체론을 앞세운 정두언 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의 주력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두언 이어 홍준표·남경필 등 출사표 호남서 선출직 최고위원 나올지 관심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광주 남구

저탄소 녹색마을 차질 없어야

광주시 남구 민선5기는 봉선시장 현대화 사업 마무리, 칠석(도금)마을 생활하수 정비 및 자체 처리시설 설치공사,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사업 시행 등 지역 특색에 맞춘 친환경사업 추진이 당면과제로 꼽힌다.

우선 노후한 봉선시장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화장실을 확장하는 등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를 제대로 처리해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숙제다. 칠석(도금)마을은 남구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4000m에 이르는 하수관로



민선 5기 최영호 남구청장 당선자가 철거를 공약한 광주 남구 백운고교도로

또 제석산~분석산 간 산림연결 복원사업 역시 도시 숲의 이용객이 증가해 숲의 황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사용하는 자립형 마을로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적응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봉선시장 주차장·화장실 현대화로 활성화

칠석마을 하수 정비·자전거 도로 구축사업도

를 정비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지는 게 급선무다.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남구 대촌동 일대에서 이뤄지는 사업도 남구의 대표적인 지역 교통 인프라 구성 사업으로, 녹색교통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대촌동 승촌마을을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조성 사업은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녹색성장 정책으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저탄소녹색마을은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면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중요 사업으로 꼽힌다. 산림연결 복원사업은 주민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빠질 수 없는 녹색사업인 만큼 2011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사업기간에 맞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영호 남구청장 당선자는 “민선 5기 남구를 국제화 문화교육 특구로 만들 계획”이라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해 계획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현 구청장의 낙선으로 새로운 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선 5기를 출발하는 남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효사랑' 정책도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구는 친환경 도농 복합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살려 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최영호 남구청장 당선자는 “민선 5기 남구를 국제화 문화교육 특구로 만들 계획”이라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해 계획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5개 권역 '타운미팅'으로 여론 수렴

■ 한나라 전대 어떻게

한나라당 전당대회로 정치계의 이목이 쏠리면서 전당대회 방식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도 7~8월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여서 민주당 내에서는 한나라당의 전대 방식을 참고해 보다 우월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7월1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대에서는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한다.

현재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이들 후보는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이후 열흘간 선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구체적 선출 방식은 대의원 선거

결과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70%, 30%씩 반영해 그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5위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된다. 다만 5위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5위 득표자를 대신해 최고위원이 된다.

전국구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강원 등 5개권역으로 나눈 뒤 현지를 순회하며 타운미팅을 가지려는 것도 국민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겠다는 뜻에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강 7월 1일

한빛고시학원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남보다 빠른 합격의 기회는 바로 여름방학이다!

공무원 합격전략설명회

유망직업 취업전략설명회

일시: 6월 25일(금) 14:30 ~ 18:00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5년연속 호남지역 최다합격자 및 수석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이상 석권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